

# 호랑이 유니폼이 찰떡... 챔피언만 오면 홈런 펑펑~



KIA 이적생 이우성, 올 6홈런중 5홈런이 챔피언스 필드  
힘 있는 우타자 같증 해결...반전의 열쇠 급부상  
“부담감 없으니 운 따라와...매 순간 간절하게 뛰겠다”

‘운 좋은 사나이’ 이우성이 KIA타이거즈 반전의 키로 급부상했다.

KIA는 지난 6일 NC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경험 많은 좌타 외야수 이명기를 보내고, 우타 외야수 이우성을 불러들였다.

힘 있는 우타자 같증을 해소하기 위한 트레이드였고, 이우성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트레이드에 앞선 NC 유니폼을 입고 광주를 찾았던 지난 2일과 4일 챔피언스 필드 담장을 넘겼던 그는 지난 12일 이적 후 첫 홈런을 만들어냈다.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회 1사 2·3루에서 중앙 담장을 넘기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던 그는 지난 14일에는 멀티 홈런을 터트리면서 10·7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기록한 6개의 홈런 중 5개가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들어졌다.

챔피언스 필드의 새로운 홈런타자로 급부상했지만 이우성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이우성은 “처음 여기에 와서 부담감은 크게 없다. 잃을 게 없었다. 내가 잘해왔던 선수가 아니라 잃을 게 없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절함으로 절실하게 또 집중해서 하다 보니 나오는 결과라는 게 이우성의 설명이다.

“내가 홈런 타자도 아니었고 2군에서도 잘 못쳤다며 속스럽게 웃은 이우성은 “첫 홈런도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담장 맞고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타구가 뒤로 넘어가서 홈런이 됐다. ‘운 좋은 홈런’이 이우성에게

는 기본 좋은 원동력이 됐다.

이우성은 “사실 그 홈런을 통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은 같다”고 말했다.

‘운’을 이야기하지만 준비된 ‘운’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기회를 준비했던 그는 전력 분석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앞서 채드벨을 상대로 기록했던 홈런도 치밀한 노림수였다.

이우성은 “월스트라이크 투볼에서 채드벨이 포수 사인을 받고 고개를 흔들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투수들이 나와 상대할 때 고개를 흔들 뒤 패턴이 있었다”며 “직구 승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코스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홈런을 치고 그라운드를 돌고 수훈선수로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은 여전히 떨리고 감격스럽다. 하지만 이우성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타석에 서고 있다.

이우성은 “아구는 매일 펼쳐지는 게임이다. 하루 지나면 또 다른 하루가 온다”며 “최대한 잘했다고 들뜨지 않고, 못했다고 처지지 않고 똑같이 유지하려고 한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더워도 괜찮아... 이길수만 있다면”

박진섭 광주 FC 감독 K리그 ‘6월의 감독’ 선정...“겨울양복 계속 입어”

K리그의 새 역사를 새로 쓴 광주FC 박진섭 감독의 겨울 정장은 한여름에도 이어진다.

박진섭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앞선 19라운드 서울이랜드전에서 2·0으로 이기면서 6연승과 2위 부산아이파크와의 7점 차를 유지했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K리그2 최다무패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개막전부터 이어진 무패 행진은 어느덧 19경기(13승 6무)까지 이어졌고, 2017년 경남FC가 세운 단일시즌 K리그2 최다 무패기록을 넘어섰다.

14골을 터트리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펠리페를 중심으로 매 경기 새로운 해결사가 탄생하면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K리그 1.2부 통틀어 유일한 한 자릿수(8점) 실점을 기록한 ‘잔물수비’가 광주 무패행진의 원동력이 됐다.

무패행진 속에 박 감독의 겨울정장도 매라운드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감독은 3월 개막 날 입었던 옷 그대로 그라운드에 다시 서고 있다. 승리의 기운 담긴 겨울정장과 니트, 속옷, 양말까지 그대로 챙겨입는 게 박 감독의 경기 날 중요한 일과가 됐다.

축구팬들은 박 감독의 겨울 정장을 ‘마법갑옷’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많은 팀이 박 감독의 ‘마법갑옷’을 벗기려 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그라운드의 마법사가 된 그는 K리그 ‘6월의 감독’에도 등극했다.

박 감독은 6월 4경기에서 전승을 만들어냈다. 이 기간 광주는 8득점 1실점의 안정된 공수 균형을 자랑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은 박 감독은 ‘이달의 감독상’ 주인공이 되어 오는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박 감독은 이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트로피와 함께 신라스테이 숙박권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박 감독은 “매 경기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 어준 선수들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구단 프런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더위는 아무 상관 없다.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언제든 승리의 징크스가 된 이 겨울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호날두 ‘또 만났네’

21일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1차전  
토트넘 vs 유벤투스 맞대결

손흥민(토트넘)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년 만에 그라운드 맞대결을 준비한다. 무대는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ICC)이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잉글랜드)과 호날두가 맹활약하는 유벤투스(이탈리아)는 한국시간으로 21일 오후 8시 30분 싱가포르 칼랑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 ICC 1차전에서 맞붙는다.

2013년 처음 시작된 ICC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펼쳐지는 국제 클럽 대항전이다.

7화째를 맞는 올해 대회에는 잉글랜드 3팀(아스널·맨유·토트넘), 독일 1팀(뉘른), 이탈리아 4팀(피오렌티나-인터 밀란-유벤투스·AC밀란), 포르투갈 1팀(벤피카), 멕시코 1팀(과달라하라), 스페인 2팀(아틀레티코 마드리드-레알 마드리드) 등 12팀이 출전한다. 팀별로 3경기를 치러 우승팀을 결정한다.

토트넘은 올해 대회에서 유벤투스(21일 싱가포르), 맨유(25일 중국 상하이), 인터 밀란(8월 4일 영국 런던)과 차례로 맞붙는다.

단연 국내 팬들의 눈길을 끄는 대진은 유벤투스와 첫 대결이다. 유벤투스에는 ‘슈퍼스타’ 호날두가 뛰고 있다.

손흥민과 호날두는 2년 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대결했다. 당시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었다.



손흥민



호날두

토트넘은 2017-2018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조에서 대결했다.

조별리그 3차전 원정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1-1로 비겼던 토트넘은 홈에서 치른 4차전에서 3-1 대승을 거두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두 경기 모두 손흥민에게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와 3차전 원정에서는 벤치를 지키다가 후반 44분 그라운드에 나섰다. 선발

로 출전에 페널티킥 득점을 맞은 호날두와 그라운드에서 경쟁한 시간은 후반 추가시간을 합쳐 4분 남짓에 불과했다.

평소 호날두를 우상이라고 꼽았던 손흥민으로서 는 뭔가 보여주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와 두 번째 경기에선 출전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벤치에서 호날두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가 아니면 호날두와 맞붙기 어려운 손흥민은 2년 만에 ICC에서 상대할 기회를 얻었다. /연합뉴스